

설 끝났어도 신차 할인 계속된다

기아 '탄소제로 캠페인'·소상공인 0~6개월 무이자 할부 현대차, 아이오닉5 계약자 넥쏘로 바꾸면 100만원 할인 르노 삼성 385만원 혜택·한국GM 쉐보레 타호 론칭 행사

설 명절이 지났음에도 국내 완성차업체가 이달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놓았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지난달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각종 프로모션으로 실적 반등의 기회를 노리는 분위기다.

7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우선 기아는 '탄소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경과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EV)를 출고하거나, 봉고 LPG를 구입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 차종 출고 고객 중 M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저 1.5%(12개월), 최장 60개월(2.9%) 할부 등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구매지원 프로그램으로 레이 1.0 가솔린 밴과 봉고 디젤-LPG를 구매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0~6개월 0.0% 할부를 지원한다. 스티어링을 구매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유비 최대 3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모닝·레이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 후 첫 1년간 이자만 지불해도 되는 할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여기에 전시장 방문자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달 기아 전시장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LG R9 로봇청소기(1명)와 컨티뉴 상품권 50만원권(5명), 동구발 설거지 위생바 선물세트(100명), GS25 3000원 상품권(100% 당첨), 기아 계약금 지원 쿠폰 10만원권(3000명) 등을 증정한다.

현대차는 현대카드 제휴를 통해 벨로스터N과 아반떼N, G90 등을 구매하는 이들에게 30만~50만원

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이오닉5를 계약한 후 차종을 전환해 출고하면 넥쏘는 100만원을 할인하고, 아반떼·쏘나타·코나·투싼의 HEV 모델을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외제차·제네시스를 보유하거나 렌트, 리스로 이용하다 G70, GV70, GV60, G80, GV80, G80 EV, G90 등을 구매하는 경우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할인하고, 현대차 '운전결심' 앱으로 연수를 마치고 전용카드인 아반떼, 아반떼HEV, 아반떼N, 아이오닉5, 코나, 코나HEV, 코나N을 구매하는 이들에게는 20만원을 돌려준다.

쌍용차는 7년 이상 노후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올 뉴 렉스턴을 구매하면 30만원, 코란도와 티볼리&에어, 스포츠&칸은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15년 경과 차량 보유자가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올 뉴 렉스턴은 90만원, 코란도 및 티볼리&에어, 스포츠&칸은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히 쌍용차 차종별 재구매 대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렉스턴 스포츠&칸을 구매하면 2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구매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첨단 안전주행 보조시스템(ADAS)인 딥 컨트롤 패키지 무상 장착, 무이자 할부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르노삼성은 이달 전기차 르노 조에는 최대 3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 맞이 100만원

의 특별 가격 할인과 함께,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100만원 추가 할인과 선불 충전카드 50만원이 제공된다. 공무원·교직원·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구는 50만원 특별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르노 마스터 15인승 버스는 이달 385만원의 톨 큰 혜택을 준다. 이달 르노 마스터 15인승 버스를 구매하면 각종 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7% 할인(33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승객석 램프 메인 스위치(off기능)를 무상 제공한다. 종교단체나 학교·학원, 식음업종에서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6개월간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포함한 최대 66개월의 할부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QM6 GDe 프리미에르 150만원, RE 시그니처 130만원, LE 시그니처 100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QM6 LPe는 프리미에르 50만원, RE·LE 시그니처는 각각 30만원, 2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트위지는 50만원의 현금 할인과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GM은 쉐보레 타호 한국 공식 론칭을 기념해 이달 달간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타호 론칭 이벤트'에 응모하고 쉐보레 온라인 슌을 통해 차량을 계약하면 추첨을 통해 3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아나티 남해 숙박 패키지를 제공하고, 30명에게는 GS칼텍스 30만원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에 더해 말리부는 선수를 10%의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할부와 현금 지원이 결합된 콤보 할부로 구매할 경우 트레일블레이저는 50만원, 말리부는 18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각 소비자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통해 스파크를 구입하면 20만원 할인과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말리부와 트레일블레이저는 30만원 할인과 모바일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작은 거인' 캐스퍼, 밴 나왔다

적재능력 향상·가솔린 터보 엔진 옵션... 1375만원

'광주형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됐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첫 경형 SUV 캐스퍼 모델 중 적재능력을 한층 강화한 '캐스퍼 밴' (사진)을 출시했다.

캐스퍼 밴은 캐스퍼의 디자인과 안전·편의 사양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기존 2열 시트 공간을 비워내 940ℓ의 적재 용량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캐스퍼 밴은 가솔린 1.0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6PS(마력), 최대 토크 9.7kgf·m, 복합연료소비율 14.3km/ℓ를 달성했다.

보다 강력한 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가솔린 1.0 터보 엔진도 선택 옵션으로 운영한다. 터보 엔진 모델의 경우 최고 출력 100PS, 최대 토크 17.5kgf·m, 복합연비 12.8km/ℓ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현대차는 캐스퍼 밴에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

방충돌방지보조(차량·보행자·자전거 탐승자)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차로 유지 보조(LF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전방차량 출발 알림 등을 기본 적용했다.

이어 경량화 공법인 핫스탬핑을 주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충돌 시 차체 변형을 최소화하고, 고강성 경량 차체를 구현해 비틀림 강성과 평균 인장 강도를 높여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캐스퍼 밴의 판매 가격은 단일 트림 1375만원으로, 전용 웹사이트 '캐스퍼 온라인' (casper.hyundai.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캐스퍼는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다재로운 색상을 앞세워 경형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왔다. 특히 운전석을 포함한 전 좌석 폴폴딩 기능을 적용해 실내 공간 활용성을 확장하면서 큰 인기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영화 '언차티드'에 투싼 출연 현대자동차는 오는 16일 국내 개봉 예정인 영화 '언차티드'(Uncharted)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인 투싼이 등장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영화에서는 투싼을 오프로드 컨셉으로 개조한 '투싼 비스트'(Tucson Beast)가 주인공 일행의 차량으로 등장,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다양한 주행 장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차 제공>

쌍용차 첫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공식 출시

쌍용차는 7일 국내 최초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란도 이모션' (사진)을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란도 이모션은 기존 코란도 플랫폼을 활용해 만든 쌍용차의 최초 전기차다. 최대 출력 140kW(190ps)·최대 토크 360Nm(36.7kg·m)의 동력을 갖췄고, 61.5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시 307km의 주행 거리를 보장한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선형 라인업과 상어 지느러미를 모티브로 한 범퍼, 보석을 형상화한 LED 리어 램프,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등이 특징이다. 적재공간은 551ℓ



로 국내 전기 SUV 중 가장 넓다고 쌍용차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이제는 “수목장”입니다.

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환경을 위해 수목장으로~

- 1 매장,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저렴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 3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

수목장 장점



개인 수목장 조성 과정



가족(30평 이하) 수목장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가족묘, 문중묘 → 수목장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문의: 062-464-9190